

# 공 보면 분노에서 자유로워

<空>



달라이 라마를 주제로 한 서적과 영화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 불자들(위).

7000여 명의 청중들이 법회장을 가득 메워 달라이 라마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자라고 생각합니까?

바른 불자는 실상의 진리를 압니다. 네 가지 숭고한 진리와 열두 가지 연기의 진리를 친절히 논하고 있습니다. 불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싹 틔운 불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긋남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답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나'라고 하는 강한 집착 때문에 타인의 숭고한 충고를 쉽게 용납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무지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무엇을 만들어 냈습니다. 나가르주나는 근본의 밀바탕으로 들어가 실상의 중론을 고심했습니다. 그것이 <반야심경>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엇의 불법의 핵심입니까? 나는 14대 달라이 라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름을 짊어지고 75년의 세월을 지내왔지요. 그러나 나의 실체는



'공(空)'입니다. 티베트와 티베트인의 삶은 자비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달라이 라마라는 티베트 출신의 종교인이 들려주는 실상의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과학이 진보를 거듭해도 기술과 돈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심연의 변화와 켜켜이 쌓인 일상의 고민들이 여러 분과의 만남에 인(因)을 성립시켰습니다.

<반야심경>은 나를 포함한 모든 현상에 실재하는 존재가 없다고 거듭거듭 밝힙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

건 간에 모두 인간의 '희망'이 만들어낸 욕망의 화합체입니다. 그 속성인 공성(空性)을 보면 모든 분노와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르는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반야심경>은 권고합니다. 붓다의 세상은 현상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는 화합의 산물들이 생기를 이룰 때 건강한 마음 그 안에 붓다가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 · 카나자와=가연속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 99. 몽골성자 구루데바 노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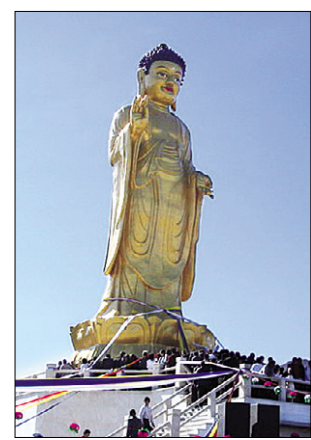
구루데바 스님은 몽골 최고 불교지도자이다. 인도성자 붓다 상의 화신으로 추앙받던 스님은 1910년 몽골 오르도스도에서 태어나 소년시절에 간질사원에서 출가했다. 다르마 팔잔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 사원을 유학하다 1946년 미얀마로 유학가 밀교와 탄트라법에 정통했다.

1953년 미얀마에서 도술사를 짓고 80여 티베트 승려들을 교육했다. 1972년 남인도에서 다시 혼배사원을 창건한 스님은 1970년 몽골 간단사 공보짜브 스님의 초청을 받아 고향에 와 역대 성자들의 저술을 정리하고 티베트승가대학 교재를 몽골어로 번역해 인재 교육에 힘을 쏟았다.

구루데바 스님은 다시 인도와 미얀마를 거쳐 1993년에 몽골에 재입국해 자나바자르 성자가 창

와 함께 스님을 방문했다. 스님은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온 필자를 보더니 "나는 몸에는 병이 없고 마음에 병이 있으니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는 "대체 무슨 병



몽골 국제평화공원의 23m 대불.

모습으로 항마구제의 수인을 한 석가모니 본불로써 외세의 독선주의 종교를 경계하고 자국민의 불교신앙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불과 함께 조성된 500관 범종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사랑의 종소리이고, 2m의 큰 북은 무명을 타파하는 지혜의 북소리이다. 현재 이 대불은 몽골의 명물이다.

당시 봉불식에는 필자와 더불어 의학 스님, 불교진흥원 흥승회 이사장, 대한현문 손현수 회장, 다시초령사원의 담마자브 스님 등 양국의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몽골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스님의 사리탑과 비석을 국립공원에 조성했다. 몽골은 국민의 70% 이상이 불교신도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 개신교의 목사, 집사, 전도사가 집중적으로 몽골에 들어와 많은 몽골사람들이

### 몽골의 명물 23m 대불... "몽골인에게 웃음 안겨주고파"

건했던 아마라바라가란트를 증진해 국가 문화재로 등록했다. 그리고 몽골 청소년들을 모아 나담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 축제는 매년 9월 달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다.

구루데바 스님은 일본이 몽골 정부로부터 울란바트로 시내 도로를 포장해 주는 대가로 자이산공원의 땅 8000평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요구를 듣고, "자이산공원에 부처님을 모셔야만 몽골이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의 이러한 요청에 몽골 정부는 자이산공원 8000평을 스님에게 불허했다.

필자는 2003년 당시 불교진흥원의 후원으로 몽골에서 고려사를 창립하고 의료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몽골국립방송에 우리들의 활동 상황이 보도되자 구루데바 스님은 필자와 만나자는 전갈을 보내왔다. 당시 96세였던 스님이었기에 의사와 간호사

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자이산 종덕에 18m 높이의 부처님을 조성해 근 70년 동안 웃음을 잃어버린 몽골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구루데바 스님에게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세계 불교공원 건립은 이듬해인 2005년 9월 봉불식을 거행했다. 이 봉불식의 계기가 현재까지 '몽 불교 교류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몽골 자이산의 세계불교공원 조성은 이렇게 구루데바 스님의 원력과 몽골정부, 한국 스님과 불자들에게 의해 완성됐다.

울란바트로 자이산 국립공원에는 23m 높이의 석가여래대불이 들어섰으며, 그 앞에 종각과 북각이 건립돼 한국과 몽골 교류의 상징적인 탑을 형성했다.

대불은 한국 사람들의 몸체에 몽골 사람의 얼굴을 한 부처님의

개신교로 전향을 하고 있다.

몽골은 18세기까지 전통적인 불교국가였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에 7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전사하는 간단사라는 사찰 한곳만 존재했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이뤄졌고 한국에서도 몽골에 고려사를 세우고 달마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몽골불교대학교와 한국은 현재까지 학문결연을 맺고 활동 중에 있다. 하지만 240여 개 교회가 몽골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평화공원의 낙성법회는 한·몽 불교 교류와 몽골 불교진흥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보인다. 구루데바 스님의 원력과 한국과 몽골 간의 불교 교류의 상징인 세계불교공원을 생각하며 많은 한국 불자들도 불교 포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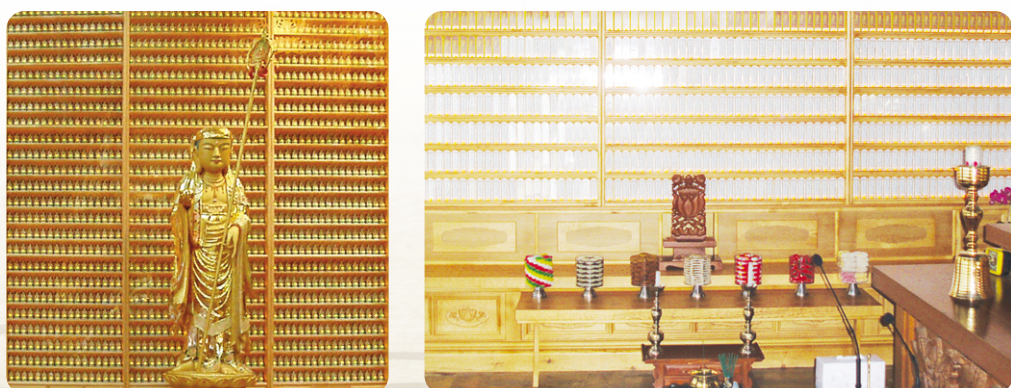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려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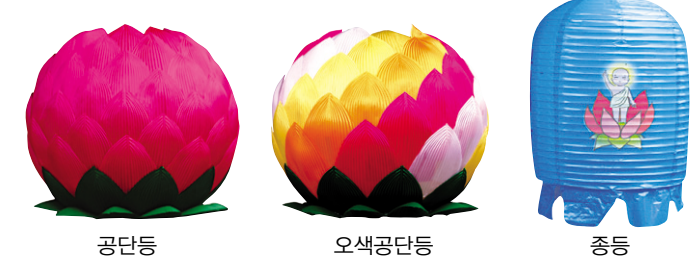


영가등    왕생극락등

불교(佛敎)에서의 백중일 유래(由來)는 효성이 지극한 목련비구(目蓮比丘)가 지옥에 떨어진 모친(母親)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오미(五味)를 가진 음식과 온갖 과실(果實)을 갖추어 부처님께 공양(供養) 했다는 <우란분경(盂蘭盆經)>이라는 불경(佛經)의 이야기에서 연유(緣由)합니다.

※ 백중을 맞이하여 영가등 · 왕생극락등등 주문 받습니다.

###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종등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밸런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로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